



미국 전기차시장의 청사진을 그리다

1.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중심에 선 전기차 산업

-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중심에 선 전기차
-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들은 산업 내 성장 가능성과 연관성이 높은 물량(Quantity)과 가격(Price) 측면을 모두 감안하여 수립되었다는 특징
- 현재까지 제시된 지원책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비롯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이 포함

2. 전기차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

- 2022년 바이든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시작되는 원년
-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 계획. 충전 인프라 확대될 경우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전기차 가격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전기차 실질 구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 가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

3. 미국 완성차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도 긍정적

- 바이든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포드, GM 등 미국 완성차업체들 연초부터 전기차 부문 투자 강화 및 사업 확대 계획 연이어 발표
- 팬데믹 이후 현금 보유 비중을 높였던 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규모 투자 집행을 예고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해볼만한 사안
- 전기차 판매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수급은 물론 단가 인하를 위한 조치 시행에도 적극적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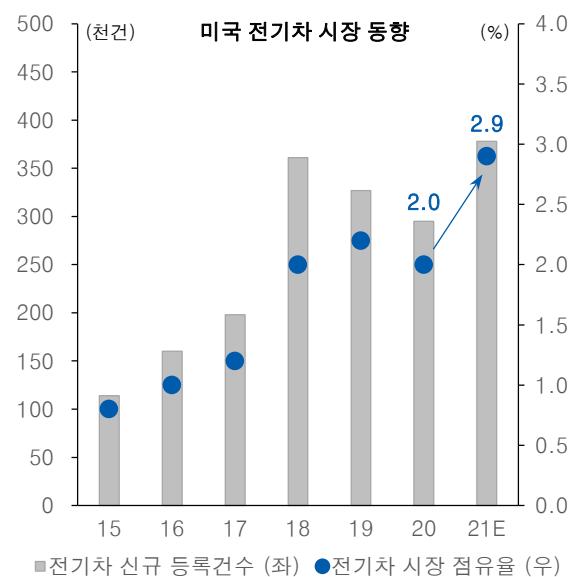
1.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중심에 선 전기차 산업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존재하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차 도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30년 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신에너지차(NEV)를 비롯한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발표 이전인 '20년 기준 2%에 불과했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본다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바이든이 제시한 전기차 관련 정책들을 보면 산업 내 성장 가능성과 연관성이 높은 물량(Quantity)과 가격(Price) 측면을 모두 감안하여 수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신규 등록건수를 보면 '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수치가 지난해 반등하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든은 정책을 통해 이를 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결된 \$1.2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겨있으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복지 지출안에는 세액 공제를 통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챠트1] 미국 전기차 신규 등록건수는 팬데믹 이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20년 2.0% → '21년 2.9%)



[챠트2]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전기차 관련 정책은 물량과 가격 측면을 모두 감안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

법안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인프라 법안 (Infrastructure b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억 투입,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 – 충전 인프라가 낙후된 지방 중심
사회복지 지출안 (Build Back Be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12,500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공 – 전기차 한 대당 \$7,500 세액 공제 혜택 +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될 경우 \$4,500 추가 + 미국산 배터리 탑재시 \$500 추가
바이든 행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크레딧 제도 – 평균 연비 기준 미달시 벌금 부과 – 전기차 판매, 벌금 상쇄용 크레딧 확보 – 23년형 신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유도 효과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Experia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21년 10월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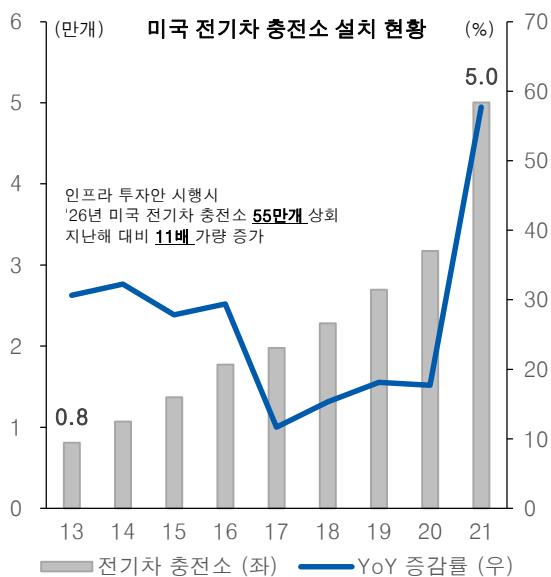
자료: 백악관(The White Hou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전기차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

2022년, 올해는 바이든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인프라 투자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1년 기준 미국 내 전체 전기차 충전소는 약 5만개에 불과했는데, 이를 약 11배 가량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 확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기차를 선택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2월 초까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역 및 세부 지침 등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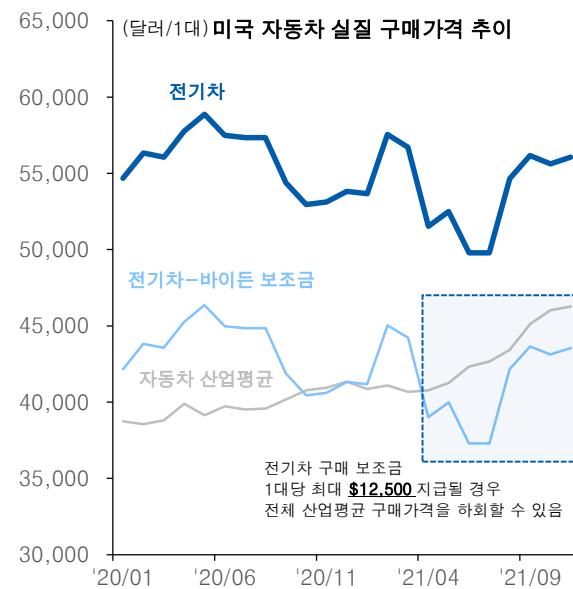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복지 지출안에는 배터리 소재 원가 부담으로 최근 수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매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타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지출안이 가결될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12,500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시 전기차 실질 구매가격은 전체 산업평균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높은 전기차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챠트3] 인프라 투자안 시행 시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55만개 상회 예상, '21년 대비 11배 가량 증가한 수준



자료: 미국 에너지부(DOE),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챠트4] 바이든 정부의 구매 보조금 감안할 시, 전기차 실질 구매가격은 전체 산업평균 가격 하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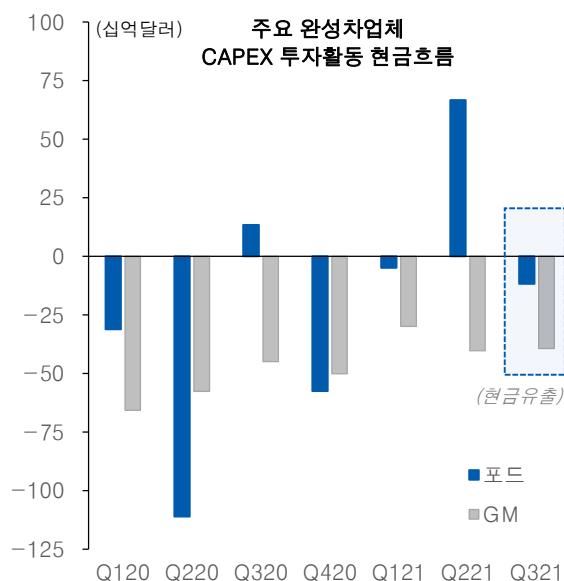
자료: Kelley Blue Book, 유인티증권 리서치센터, 주: 실질 구매가격 월간 평균, 보조금 제외

3. 미국 완성차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도 긍정적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포드, GM 등 미국 완성차업체들도 연초부터 전기차 부문 투자 강화 및 사업 확대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특히 포드의 경우 주요 차종의 전기차 버전 모델들을 출시하는 등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4일 포드의 시총은 1,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포드, GM 등 주요 완성차업체들의 CAPEX를 포함한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은 '21년 3분기 기준 모두 유출로 전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금 보유 비중을 높였던 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규모 투자 집행을 예고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탑재될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각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수급은 물론, 단가 인하를 위한 조치 시행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25년까지 미국 내 새로운 배터리 공장이 13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중 8개가 미국 완성차업체와의 합작회사(JV, Joint Venture)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정책은 물론 기업단에서도 전기차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금년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류는 눈에 띄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차트5] 미국 주요 완성차업체들의 CAPEX 투자는 3Q21 기준 유출로 전환된 상태



자료: Bloomberg,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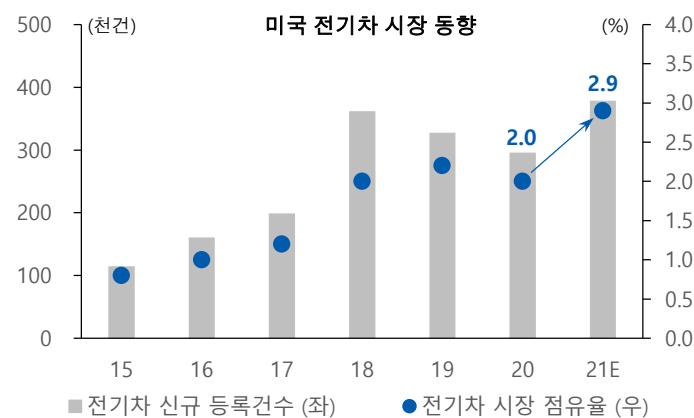
[차트6] 미국 내 건설 예정된 배터리 설비. 완성차업체 비중 62%, 배터리 수급 및 단가 인하 의지 확인

기업 (JV대상)	지역	예상 가동시점
포드	테네시주(TN)	2025년
포드 (SK이노베이션)	켄터키주(KY)	2025년
	켄터키주(KY)	2026년
GM (LG화학)	오하이오주(OH)	2022년
GM (LG에너지솔루션)	테네시주(TN)	2023년
스텔란티스 (LG에너지솔루션)	미정	2024년
스텔란티스 (삼성SDI)	미정	2025년
폭스바겐	테네시주(TN)	미정

자료: 미국 에너지부(DOE),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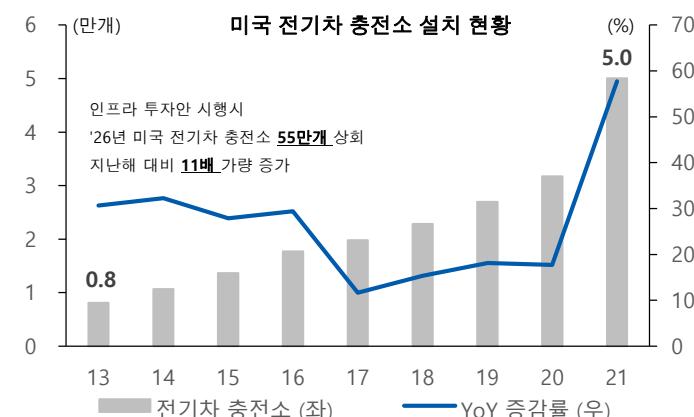
Key Chart

미국 전기차 신규 등록건수는 팬데믹 이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20년 2.0% → '21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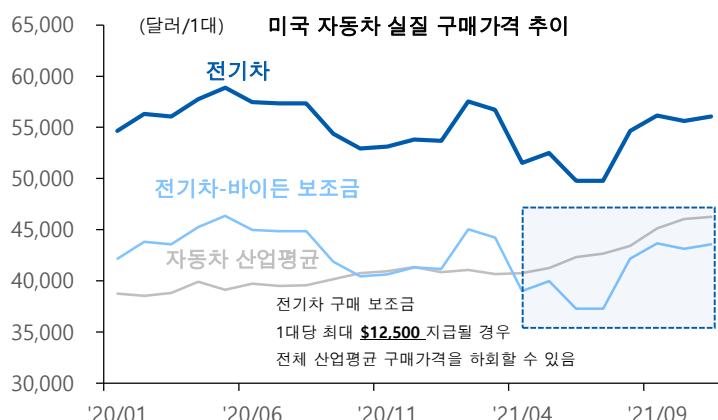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Experian,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21년 10월 누적 기준

인프라 투자안 시행시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55만개 상회 예상, '21년 대비 11배 가량 증가한 수준



자료: 미국 에너지부(DO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바이든 정부의 구매 보조금 감안할 시, 전기차 실질 구매가격은 전체 산업평균 가격 하회할 것으로 전망



자료: Kelley Blue Boo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실질 구매가격 월간 평균, 보조금 제외